



준PO 화끈한 응원전 두산이 준PO 1·2차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한 가운데 3차전은 넥센의 안방인 목동구장에서 펼쳐진다.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잠실구장과 달리 목동구장은 타자친화적 구장이다. 11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준PO 2차전 도중 두산(왼쪽 사진)과 넥센 팬들이 열띤 응원전을 주고받고 있다.

촬영 | 김중현 기자 won@donga.com

리버스스윙 확률은 40%...목동구장이 최대 변수

〈준PO 2연패 후 3연승〉

두산 vs 넥센 '준PO 3차전' 전망

역대 준플레이오프서 2차례 리버스스윙
두산 선발 유희관 넥센 상대 방어율 7.64
목동구장 최적화된 넥센타자들 타격 관건

준플레이오프(준PO)가 5전3선승제로 치러지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10번의 승부가 있었다. 이중 5차례 한 팀이 1·2차전을 모두 이긴 시리즈가 나왔다. 언뜻 생각하기에 단 1승만 추가하면 PO에 진출할 수 있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처럼 보인다. 그러나 통계를 다르다. 이 중 2차례 대역전극이 있었다. 확률로 치면 무려 40%다. 2010년 제리 로이스터 감독이 지휘했던 롯데는 두산과 준PO 1·2차전을 모두 잡았지만 3~5차전을 내주고 허무하게 탈락했다. 2013년 넥센은 두산을 만나 역시 1·2차전을 이겼지만 3~5차전을 내리 패하며 리버스 스윙의 제물이 됐다.

두산은 10일과 11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넥센과의 올해 준PO 1·2차전을 모두 이겼다. 2경기 모두 압도적 승리는 아니었다. 볼펜을 모두 투입해 가까스로 이겼다.

13일 3차전은 1·2차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 두산이 유리해보이지만, 구장이 잠실에서 목동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넥센 선발도 에이스 앤디 밴 헤켄이다. 단순히 확률 60%와 40%의 싸움이 아니다. 여러 변수가 얹혀 있는 예측이 힘든 승부다.

2013년 넥센과 PO를 치른 LG 봉중근은 당시 "잠실(외야 펜스 좌우 100m·중앙 125m)에서 넥센 타자들을 상대하는 것과 목동(좌우 98m·중앙 118m)에서 만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야구장 크기도 큰 차이가 있고, 목동은 타석보다 외야 펜스의 높이(해발고도)가 조금 낮게 느껴진다. 그만큼 홈런의 위험성이 높다. 넥센 타자들은 이 목동에 가장 최적화된 스윙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11일 준PO 2차전 두산 마무리 이현승과 포수 양의지는 3-2로 앞선 8회초 2사 2·3루

서 넥센 4번타자 박병호를 고의4구로 거르고 5번타자 유한준과 승부했다. 만루를 감수하고 유한준을 선택해 결과적으로 우익수 플라이를 유도해냈다. 그러나 목동구장이었다면 이 같은 결정에는 큰 망설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 유한준은 잠실에선 장타율이 0.302로 평범한 편이지만, 목동에선 홈런 19방을 때린 장타율 0.745의 거포이기 때문이다.

3차전 두산 선발은 좌완 유희관이다. 올 시즌 18승을 거둔 리그 정상급 선발투수지만 넥센을 상대로는 유독 약했다. 3경기(1승 1패) 17.2이닝을 던져 방어율 7.64를 기록했다. 피안타율은 0.380에 달하고 홈런도 4방을 맞았다.

3차전 넥센 선발 앤디 밴 헤켄은 두산을 상대로 5경기(2승 1패)에서 29이닝을 던져 방어율 3.10의 안정적 성적을 냈다. 피안타율은 시즌 전체 0.257보다 낮은 0.241이다. 마무리 조상우가 11일에 이어 12일까지 이틀간 쉬는 점도 넥센으로선 긍정적이다.

촬영 |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유희관 (두산)			(넥센) 밴 헤켄		
시즌 성적	상대 성적	구분	시즌 성적	상대 성적	시즌 성적
30	3	경기수	5	32	
18-5-0	1-1-0	승-패-세	2-1-0	15-8-0	
189.2	17.2	이닝	29.0	196.2	
84(83)	16(15)	실점(자책)	14(10)	92(79)	
3.94	7.64	방어율	3.10	3.62	
126	18	타점	20	193	
48	4	4사구	12	68	
23	4	피홈런	1	14	
1.25	1.87	WHIP	1.31	1.31	
0.269	0.380	피안타율(전체)	0.241	0.257	
0.261	0.348	피안타율(좌타자)	0.255	0.269	
0.273	0.393	피안타율(우타자)	0.230	0.250	

변 다른

준PO 3차전 선발 유희관 “목동선 내가 그나마 낫다”



두산 유희관(29·사진)이 자신이 준플레이오프(준PO) 3선발인 이유를 직접 밝혔다.

유희관은 올 시즌 두산의 에이스다. 18승5패의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1선발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러나 준PO 1·2차전에 선발로 출격하지 않았다. 1차전은 터스니 니퍼트, 2차전은 장원준이 각각 맡았다. 유희관은 13일 넥센의 홈 목동구장에서 열린 3차전 선발로 낙점됐다. 그 이유에 관심이 집중됐는데, 유희관 스스로 분석한 결과는 이렇다. “그나마 3명 중 내가 목동에서 가장 낫았다”는 것이다.

올 시즌 두산 선발들은 ‘한국의 쿠어스필드’인 목동구장에서 처참한 결과를 낳았다. 니퍼트는 3경기(선발 2회)에 등판해 1패, 방어율 9.72로 크게 부진했다. 장원준도 1경기 선발 등판했는데 3이닝 동안 무려 7실점(5자책점)하며 패전을 떠안았다. 유희관 역시 올 시즌 목동구장에서 1경기 등판해 방어율이 무려 7.50이었다. 기록은 6이닝 9안타 2홈런 6실점(5자책점). 그러나 타선이 타진 덕분에 쏙스럽게 승리를 챙겼다. 결과로 보면 유희관이 3명 중 유일하게 목동구장에서 1승을 거둔 것이다.

준PO 2차전이 펼쳐진 11일 유희관은 “셋 중에 그나마 내가 1승이라도 해서 목동 3차전에 나가게 된 것 같다”며 웃고는 “사실 3차전 선발이 더 힘들다. 1승1패를 하면 한 발 앞서 나가야 하니까 잘 던져야 하고, 2승을 해도 플레이오프 진출을 결정지어야 하니 잘 던져야 한다. 2013년 준PO 때 좋았던 기억도 있으니 열심히 던지겠다”고 다짐했다.

촬영 |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순간포착

정규시즌 우승 모자 쓴 김평호 삼성 주루코치



넥센-두산의 준플레이오프(준PO) 2차전이 펼쳐진 잠실구장. 삼성 김평호 주루코치가 2015 정규시즌 우승 모자를 쓰고 나타났다. 김 코치는 “오늘은 쉬는 날이다. 우리 같은 야구팬들은 쉬는 날 야구를 안 보면 할 게 없다. 그래서 왔다”고 너스레를 떨었지만, 쉬는 날 쉬지 않고 굳이 잠실구장으로 발걸음을 옮긴 이유는 양 팀의 경기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삼성은 이미 준PO 1차전 때도 진갑용, 강명구, 김용우 전력분석원을 잠실로 파견해 넥센과 두산의 전력을 파악하고 돌아간 상태였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 준PO에 이어 PO까지 거쳐야 한국시리즈 진출팀이 가려지지만 ‘유비무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의 정신을 발휘한 것이다. 통합 5연패의 위업을 달성하기 위해 벌써부터 상대팀의 전력분석에 만전을 기하는 삼성이다.

촬영 | 박성준 기자 spark47@donga.com

■이모저모

- ...두산 김현수가 11일 준PO 2차전에서 2-2 동점이던 5회말 득점하는 과정에서 왼쪽 무릎과 발목에 타박상을 입어 교체됐다. 5회말 1사 만루서 3루주자였던 김현수는 오재원의 중견수 플라이 때 홈을 파고들다가 넥센 포수 박동원과 충돌하면서 그라운드에서 나뉘었다. 박동원이 공을 놓친 것을 보고는 누워서 홈 플레이트를 짚은 뒤 고통을 호소했다. 트레이너의 부축을 받고 덕아웃으로 돌아왔던 김현수는 6회초 수비에 나갔지만 결국 7회초 수비 때 장민석으로 교체됐다.
- ...11일 넥센-두산의 준PO 2차전 8회초 넥센 박동원 타석 때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경기가 중단됐다. 그러나 잠시 후 날이 개었고, 오후 4시 45분 중단됐던 경기는 그라운드 정비를 거쳐 오후 5시 18분 재개됐다.
- ...올해 포스트시즌은 3경기 모두 만원사례를 이루지 못했다. 잠실구장은 포스트시즌 때 2만 5000명(메년트레이스는 2만 6000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11일 열린 준PO 2차전에는 2만 2765명이 입장했다. 이로써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포함한 올 포스트시즌 3경기의 누적관중은 5만 1067명이 됐다.
- ...두산 박용만 회장이 11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준PO 2차전을 직접 관전하기 위해 장남 박서원 비엔트 인터내셔널 대표와 함께 두산 점퍼를 입고 경기 시작 30분여 전인 오후 1시 30분쯤 잠실구장을 찾았다. 2차전 시구는 ‘팀빌딩 일루전 시구’로 유명한 전 리듬체조국가대표 신수지가 맡았다.

‘조원우호’의 산적한 문제들, 우선과제는 소통

■롯데, 새 판 어떻게 짜야하나?

구단, ‘소통의 리더십’ 코치진 평가 척도
고참선수 영입으로 팀워크 해결 준비도

땀을 흘린 ‘조원우호’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일까. 포스트시즌이 한창이지만, 롯데는 코칭스태프 개편을 비롯해 새 판 짜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롯데는 이미 5명의 1·2군 코치들에게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다. 올 시즌 부상관리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노출한 트레이닝과 컨디셔닝 파트를 포함하면 총 9명이 구단을 떠나게 됐다. 또 재계약 대상이 된 코치들의 잔류 여부도 불투명하다.

대개 신임 감독이 오면 코칭스태프에 큰 폭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롯데의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 이미 구단 수뇌부가 올 시즌에 대한 평가를 내리면서 코치



조원우 감독

진인, 나선 이종은 전 감독의 경질로 이어졌다.

롯데는 지난해에도 코칭스태프 선임에 애를 먹은 바 있다. OCTV 사할 등 온갖 내홍을 겪어 어수선한 분위기였고, 프로 경험에 부족한 이종은 전 감독을 따르는 지도자들도 많지 않았다. 조 신임 감독의 경우에는 프로 코치 경험은 많지만, 초임 감독인 사실은 동일하다. 게다가 만 44세로 현역 최연소 사령탑이다.

그래도 팀플레이가 사라진 선수단 개혁을 위해선 코칭스태프 선임에 온힘을 쏟을 수

박에 없다. 조 감독을 선택할 때처럼 코치 선임에도 선수들과의 소통, 리더십 부분이 평가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선수단 개혁도 지켜봐야 할 듯하다. 롯데는 홍성흔(두산)과 조성환(은퇴)이 떠난 뒤로는 선수단의 기강을 잡아줄 고참 선수의 부재로 애를 먹었다. 타 팀에 비해 주전 야수 중 30대 초중반의 중고참 선수가 부족한 것도 아쉬운 부분이었다. FA(프리에이전트) 시장에 ‘리더급 선수’가 많지 않은 것이 아쉽지만, 트레이드를 포함해 다각도로 대책을 준비 중이다.

가까운 곳에 좋은 예도 있다. 2년 연속 포스트시즌에 진출한 NC는 FA 시장에서 이러한 잣대로 선수들을 영입해 1군 진입 2년 만에 신생팀의 굴레를 벗었다. 이호준에 이어 이종욱, 손시현을 영입할 때 최우선 기준은 ‘고참으로서의 가치’였다.

이명노 기자 nirvana@donga.com

전혀 흔들림이 없다는 말에 스스로는 중압감을 느끼지 않고 뛰고 있다며)

●심장이 뛰다가 목까지 올라오더라고요. (두산 김현수. 준PO 1차전에서 2-3으로 뒤진 9회말 1사 만루서 민병현이 삼진으로 물러나는 순간 부담감이 커지면서 심장이 뛰더라며)

●한국시리즈 가서 (김)상수 만나야죠. (두산 허경민. 1990년생 동기 박건우, 정수빈, 허경민이 잘한다고 하자 또 다른 1990년생 동기 삼성 김상수가 기다리는 한국시리즈까지 가야 한다며)

●봐서 안 좋다고 해도 뭘 어떻게 하겠어요. 여차피 나갈 건데. (두산 김태형 감독. 준PO 2차전 선발투수 장원준의 볼펜 파침을 미리 점검했느냐는 질문에 ‘안 봤다’고 웃으며)

●발았어요. 근데 홈 플레이트 끝에 실책. (문승훈 심판위원. 준PO 1차전 연장 10회말 두산 박건우의 끝내기안타 때 결승득점을 올린 주자 장민석이 들어오면서 홈을 밟지 않았다고 넥센에서 항의한 상황에 대해 묻자)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트위터@simss23

■빅마우스

●하늘이 잊혀지지 않을 생일선물을 쳤네요. (넥센 김택형. 준PO 1차전이 열린 10월 생일을 맞았지만 연장 10회 구원등판해 박건우에게 끝내기안타를 맞았다며)

●양훈도 메이저리그 가나? (넥센 이택근. 준PO 1차전에 선발등판해 호투했던 양훈이 많은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자 농담 삼아)

●떨리는 게 정상이라고 하던데. (넥센 김하성. 이제 고졸 2년차지만 포스트시즌 큰 경기에서